

초록번호 17-2

제 목	국 문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의무와 법적 책임인식에 관한 연구 -판례의 간호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영 문	The Study of Perception of Du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 Practice -Legal Case related Nurse' Malpractice-	
저 및 저자	국 문	김기경, 김의숙*, 박상기**,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교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영 문	Ki Kyong Kim, Eui Sook Kim*, Shang Ki Park**, Myongsei Sohn <i>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Community Nurs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Criminal Law**.</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기경
발표 형식	구연	발표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1998년 12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 의사, 법조인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간호과오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고 법적 심리 대상이 된 업무에 대해 의무의 소지 및 범위, 책임 소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의 소재한 종합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법조인을 대상으로 간호과오관련 판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통해 논점으로 제시된 업무의 소지와 범위 및 책임소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과오 판례 183건과 대법원 판례33건, 미국의 문헌에서 소개된 판례 중 간호과오관련 판례를 추출하였다. 각 판례의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심리대상이 된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업무에 대한 의무 소재 및 범위, 책임의 소지에 대한 질문지를 구조화(개념화)하였다. 설문항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임상전문가와 법조인, 학자를 대상으로 1차 멜파이를 하여 사례와 설문항목을 수정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의료와 법 고위과정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2차 멜파이를 시행하였다.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수행중이다. 설문지는 총 21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판례가 13건, 국외(미국) 판례가 8건으로서 각각의 사례에 대해 2개의 구조화된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결과

델파이의 응답률은 18명(45%)로서 법조인 7명, 의과대학 교수 8명, 간호대학 교수 3명이 응답하였다. 업무의 소재 및 범위,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었다.

- 21가지의 사례와 함께 제시된 업무에 대하여 1. 의사의 업무이며 간호사에게 위임시에는 특별감독을 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할 수 있다(의존적 업무) 2. 의사의 업무이며 간호사에게 위임시에는 특별감독을 하여야 하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하여야 하는 업무이다(약한 상호의존적 업무) 3. 의사의 업무이며 간호사에게 위임시에는 가끔 감독을 하거나 특별히 확인하지 않으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상관없이 스스로 하여야하는 업무이다(강한 상호의존적 업무) 그 외 4. 의사의 업무로 간호사에게 위임해서는 안되는 업무 5. 간호사만이 해야하는 업무 6.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로 유형화 할 수 있다.
- 21가지의 사례와 함께 제시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하여 1. 의사의 단독 책임, 2. 의사, 간호사의 공동책임, 3. 간호사의 단독책임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의무에 대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조합하여 유형화하면 ㄱ.의존적 의무이며 의사 또는 공동책임 ㄴ.약한 상호의존적인 의무이며 책임은 의사, 또는 공동, 간호사 ㄷ.강한 상호의존적 의무이며 책임은 공동, 간호사 책임으로 볼 수 있었다.

4.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기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병원마다 또는 병동마다 관행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분담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책임의 소재를 다룰 때 먼저 문제가 된 업무의 소재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현 의료계의 상황은 이에 대한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가 서로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고 서로 혼합되어 있어 누구의 업무이며 책임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의료과오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법조인간의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더 나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의 임의성 및 합리성 부재를 지적하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인된 업무 지침과 규정, 나아가 업무를 정의한 법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제시된 사례에 대한 이해가 의사, 간호사, 법조인 마다 차이가 있고(제한된 사례설명 자체가 한계를 나타냄) 의무에 대한 질문 항목을 자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에 대한 응답과 일관성이 없는 등 질문지 자체의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법조인이 전체 대상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응답률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